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계층·소득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기호 1번)는 7일 본격 선거운동 개시 이후 두번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를 진행하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날 오일장 유세에는 이상봉·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과 김영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등이 함께 해 힘을 보탰다.

송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 표심을 공략했다. 송 후보는 “지역과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 안전소득 보장 시스템 만들 것”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기호 2번)는 7일 큰길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애월·신원지역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을 돌며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장 후보는 “애월·한림을 중심으로 감귤만이 아니라 월동채소 등을 종합적으로 산지직송할 인프라를 지어 1차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서부지역 주산물인 월동채소 등을 대상으로 제스프리-선키스트 모델을 적용해 제주 서부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희룡 도정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세업자 위한 골목상권활성화센터 설립”

정의당 고병수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기호 6번)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활성화센터를 조성해 상권 단위의 체계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행정에는 상권 및 시장활성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에도 일손이 달린 실정”이라며 “제주도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육·의료·복지 명품도시 조성”

무소속 박희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기호 9번)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제주를 보육·의료·복지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준공무원화 추진 ▷공공의료 및 공공보육 강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지원 강화 및 주민불리 증진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의 혜택은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한다”며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서로 어우러진 현장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경제가 강한 제주... 섬이라는 한계 극복”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기호 1번)는 7일 “경제가 강한 제주,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시 거로사거리 등 제주시을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벌인 오 후보는 “제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치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며 “여기에는 선진적인 해상물류체계 개편이 선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가진 지리적 고립을 탈피하고, 물류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도내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7일 제주시 거로사거리 등 제주시을 지역 곳곳에서 유세를 벌였다.

오 후보는 제주의 택배비를 반값으로 만들어 경제가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라동을 명품교육 특화도시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기호 2번)는 7일 “아라동을 명품교육 특화도시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제주의 지속 발전을 위한 교육과제는 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이라면서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명품교육도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후보는 “4차 산업 분야에 기존의 과학, 인문, 예술,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다변화해야 하는 시대”라며 “이에 우리는 미래의 4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7일 한국농촌제주도지역본부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형 융합인재양성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마을 저온저장 시설 확충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기호 1번)는 7일 거리인사와 함께 표선오일시장 등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섰다.

위 후보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남원하나로마트 앞 교차로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표선오일시장을 찾아 지역주민, 상인들과 만나 소통을 이어갔다. 또 중앙동에서 게릴라 유세를 통해 주역주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또 이날 위 후보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공약을 제시했다. 위 후보는 “위기의 1차산업 회생을 위해 마을 저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7일 서귀포시 남원하나로마트 앞 교차로에서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조기 건설로 성산읍에 활력”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기호 2번)는 7일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찾아 소통을 이어갔다.

강 후보는 이날 서귀포시 표선오일시장과 성산읍 동남로터리에서 유세를 열고 다양한 공약을 약속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강 후보는 “제2공항의 조기 건설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성산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제주 제2공항 조기건설 사업은 시급하다”면서 “주거상업복합도시를 함께 조성하고 대도제를 통해 이주민들의 편안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가 7일 서귀포시 표선오일시장과 성산읍 동남로터리 등 동부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Grand Hearing (그랜드보청기) featuring a doctor and promotional text about hearing aid benefits and a COVID-19 prevention campaign.

Advertisement for Widex hearing aids, highlighting features like natural sound and Danish technology, and offering a 131 million won support.

Advertisement for a hearing aid store (국제보청기프라자) offering free hearing tests and government support up to 131 million won.

Advertisement for TI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주)), providing various IT services and solutions.